궁금한 건 못 참지

예수 그리스도 04

1.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님(Lord)이라 부를까?**

"이 정도 편법은 괜찮겠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유혹의 순간을 만납니다. 정직하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을 때, 조금만 눈감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을 멈춰 세우는 한마디가 있습니까?
진짜 신앙은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보다 일상의 치열한 선택 속에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순간, 유혹과 타협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받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그 무게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급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Kyrios)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이 호칭을 예수님께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며, 우리 삶의 실질적인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존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음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와 그분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46)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호칭이 아니라 삶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진정성은 예배 시간보다 일상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이 정도 편법은 괜찮겠지"라는 욕망과 "정직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나는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상대방을 비난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 때, 나는 감정의 분출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절제와 사랑을 선택하는가? 용서하기 싫을 때, 손해 보기 싫을 때, 인정받지 못해 억울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가?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도덕적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답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 책임의 무게에 짓눌리곤 합니다.
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구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크고 선하신 분께 인생을 맡기는 가장 지혜로운 신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자리에 다시 내가 앉으려 하고, 운전대를 다시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완벽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결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삶의 최종 결정권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평범한 일상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여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최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유혹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직, 관계, 시간, 돈, 말, 직장, 학업 등) 그때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_____

-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로 이해해 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_____

- 누가복음 6장 46절은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신앙고백과 실제 삶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나요?

→ _____

- "순종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내 삶에서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기 가장 어려운 영역은 무엇입니까? (진로, 재정, 인간 관계, 자녀, 미래, 자존심 등)

→ _____

-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이라 부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유혹 앞에서는 정직을, 분노 앞에서는 사랑을, 손해 앞에서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기꺼이 맡겨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 작은 결정 하나까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